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박대신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0년 (불기 2563년) 6월 30일 (화)

<http://dongguk.or.kr>

제252호

가슴마다 높푸른 이상 ... 꿈을 현실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동국인의 활약상 돋보여



서울캠퍼스 본관 입구에 설치된 명예의 전당

21대 국회의원 20명 당선 쾌거 ... 역대 최다

공채 출신 첫 대통령 경호처장 유연상 동문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 위한 수익사업 확충

3면

지난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의사정수 300명) 선거에서 동문 20명이 당선됐다. 선거에는 50명의 동문이 출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회의원 20명 진출로 역대 최다 동문 당선 기록이 경신했다. 지금까지 최다 당선 기록은 1985년 2월 치러진 12대(의사정수 276석) 선거에서 19명이었다. 대학별 당선자 순위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이어 5위로 조사됐다. 동국의 정치파워가 다시 부상하였음을 보여준다.

13면

유연상(경행85)동문이 대통령경호처 공채 출신 첫 경호처장이 됐다. 청와대는 유신임 경호처장이 “문재인 정부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통령 경호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향후 내부조직의 혁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경호제도 및 경호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유 신임 경호처장은 지난 5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5면

본회는 사업재정위원회(위원장 김환배)를 중심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사업 확충에 나섰다. 총동창회의 운영에 윤활유 역할을 하게될 수익사업은 지난해 11월 친환경 천연제설제(스타스테크) 및 공공시설 전기온돌 생산·시공사(삼명테크)와의 판매대행 MOU에 이어, 올 5월에는 복지쇼핑몰 개설(이제너두)과 바이칼 차가버섯(서가인터넷내셔널) 판매 제휴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동국장학위원회
참여 안내

동국장학위원회 신청서(7면 참조)를 총동창회 사무처로 보내주시거나, 거래은행에서 장학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3-886719 (예금주 재단법인동국장학회), 문의 : 02-733-3991, 02-733-0303



[2] 2020년 6월 30일 (화)

종합소식

제252호

정기총회, 예산 및 결산안 승인

불참 임원에게 회의자료집 우편 발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2020년 정기총회가 5월28일 오후 7시30분 회원 223명(위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인사동 동창회관에서 열렸다. 회칙 15조(총회의 구성과 소집)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며, 회원 200명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각 분야에서 흥역을 앓고 있다. 우리 동창회 역시 예외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총회를 연기했다가 동창회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총회 요건을 갖춰 간소하게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동창회는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남택호(80경영), 윤병관(화공82)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회계 감사 의견으

로는 2019 회계연도의 결산수지 사항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고 △회무 감사 의견으로 회무가 부정행위, 법령이나 회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은 없다”고 발표했다. 감사 권고사항으로는 △임원 분담금과 연회비 수납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 △총동창회 산하 각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다양하고 유능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와 이사회를 거쳐 상정된 △2019년도 회무 및 결산의 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장학위원회 운영의 건 등으로 각기 원안대로 수정없이 의결, 승인됐다.

한편 총동창회 사무처는 ‘2020 정기 이사회 및 총회 회의자료집을 제작해 참석자에게 배포했으며, 불참한 임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정기이사회 “장학위원회 정착 노력”

2020 정기이사회가 5월28일 오후 6시30분 서울 인사동 동창회관에서 열렸다. 임선기 사무총장은 성원보고에서 “회칙 1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는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며,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오늘 이사회에 201명이 참석(위임장 포함), 적법하게 성원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제1호 의안 2019년도 회무 및 결산의 건 △제2호 의안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제3호 의

안 장학위원회 운영의 건 등에 대해 각의안별로 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3호 의안의 경우, 총동창회가 지난해 선포했던 비전 100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핵심사업으로 알고 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후배들의 장학사업인 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1,2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된 사항으로 이의없다”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임위원회, 올해 사업계획 심의

제28대 총동창회 4차 상임위원회가 5월28일 서울 인사동 동창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상임위원 29명중 23명(위임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임선기 사무총장의 전회차(28대 3차)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에 이어 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할 각 의안들을 논의했다.

제1호 의안 2019년도 회무 및 결산의 건은 윤병관(화공81)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은 뒤 △일반회계 수입 6억7천7백51만6천146원, 지출 4억8천7백80만6천144원, 차기 이월액 1억8천9백71만2원 △특별회계(회관건립기금) 동창회명의 3억4천9백90만7천674원, 총동창회·모교 공동명의 예치금 23억4천3백94만122원 등 총 26억9천3백84만7천796원에 대한 결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2호 의안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은 △사업계획으로 ①동문들의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축하연

코로나19로 간소했지만 동국발전 ‘한 목소리’



▲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축하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제21대 국회의원 동국가족 당선자 초청 축하연’이 5월21일 정오 모교 본관 5층 교무위원회실에서 열렸다.

학교법인, 대학, 총동창회가 공동개최 한 축하 행사에는 4선의원이 된 홍영표(철학78) 노웅래(언론정보99), 3선 이재익(사대원90), 2선 이상직(경영82) 전재수(역사교육90) 동문과 초선 이주환(85경계) 지성호(법학09) 하영제(대학원96) 동문이 참석해 축하패와 꽃다발, 기념품 등을 받았다.

축하패는 성우 이사장 스님, 꽃다발은 윤성이 모교 총장, 기념품은 박대신 총동창회장이 각각 당선자들에게 전달했다. 참석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별도로 감사패 등을 전달하게 된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범인 상임이사 성월스님, 모교 정책위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동공회 대표 등 40여명의 한정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김종필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정치82) 사회로 간소하게 열렸지만 축하의 열기는 뜨거웠다. 동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동국발전에 대한

애정도 넘쳐났다.

홍영표 동문은 당선인을 대표한 인사에서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면서 “한편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의 가족임을 항상 잊지 않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는 모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건배는 조계종 원로의원 베타스님(인철67)의 “동국중흥(다 이루어지지 않아 사바하)”을 시작으로 “자비로운 세상을 위하여”(이주환) “무한 / 도전”(노웅래) “동국은 / 가족”(지성호)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도록”(하영제) “주아~ / 쭈욱~”(하영제) “동국대학교 / 파이팅”(이재익) “불심으로 / 대동단결”(이상직) 순으로 이어져 모교 발전을 염원하는 애교심이 어느 때보다 드높았다.

한편 지난 4월15일 실시된 21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동문은 모두 20명으로 역대 선거사상 가장 많은 당선자가 나왔다.

동국대학교 동문들을 VIP로 모십니다

제주에 오시면 제주THE렌트카 ‘마탐’을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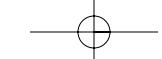
마탐

Thank you so much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임원분들에겐 추가 할인제공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분들을 위한 개별 할인을 지급 (총 결제금액의 7%)
- 결제금액의 일정부분(3%)을 동국대학교 학생을 위한 기부금 지원
- 월/년 단위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로부터 발생한 예약 및 매출 보고서 작성 및 공유



결제금액의 일부를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으로 기부



제252호

본 회 소식

2020년 6월 30일 (화) [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문 20명 당선



홍영표 (철학78)

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직 (경영82)

전북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2선)

이주환 (경제85)

부산 연제구
(미래통합당)

구자근 (법학86)

경북 구미갑
(미래통합당)

이규민 (국문87)

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역사교육90)

부산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 2선)

지성호 (법학09)

비례대표
(미래한국당)

노웅래 (언론정보99)

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 4선)

윤재우 (대학원06)

대구 달서을
(미래통합당, 3선)

주호영 (불대원10)

대구 수성갑
(미래통합당, 5선)

김교흥 (대학원96)

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이채익 (사대원90)

울산 남구갑
(미래통합당, 3선)

이상현 (대학원06)

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2선)

홍성국 (행대원)

세종시 갑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언론정보00)

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3선)

한기호 (행대원90)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미래통합당, 3선)

김석기 (행대원85)

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2선)

동국의 정치학맥 위상 빛나다 … 20대 보다 8명 늘어 지역구 17명 · 비례대표 3명



하영제 (대학원96)

경남 사천남해하동
(미래통합당)

유정주 (영상원05)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

지난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홍영표(4선)동문을 비롯 지역구 17명,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20명의 동문이 당선돼 역대 최다 당선을 기록하며 동국의 정치학맥 위상을 드높혔다. 지난 20대 국회 12명보다는 8명이 더 늘었다. 그동안 최다는 12대때 19명이었다. 당선자는 학부 출신 7명과 일반대학원 4명, 영상대학원 1명, 불교대학원 1명, 행정대학원 3명, 언론정보대학원 3명, 사회과학대학원 1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명, 부산 2명, 대구 2명, 인천 2명, 울산 2명, 세종 1명, 경기 2명, 강원 1명, 전북 1명, 경북 2명, 경남 1명과 비례대표 3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명, 미래통합당 8명, 미래한국당 2명, 더불어시민당 1명 등이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 각 지역과 비례대표 후보 등으로 동문 50여명이 출마, 선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가운데서도 서울 송파을에서 출마한 최재성(불교84, 더불어민주당) 동문은 5선 고지에서 낙선, 아쉬움이 컸다. 경남 양산을에서 출마한 前 양산시장 출신 나동연(무역80, 미래통합당, 양산을) 동문도 석패했다. 前 국회의원 이정현(정 외78, 무소속, 영등포을) 동문과 구상찬(체교77, 미래통합당, 강서갑) 동문도 서울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한편 동문들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로 위로했다.

* 사진 배치는 학부와 대학원순으로 배치했으며, 학부는 학번순, 대학원은 지역별 선거구 순서에 따랐다.



조수진 (언정원04)

비례대표
(미래한국당)

저시력 어린이에게 맞춤안경을 제공하는 [효성 베트남 의료봉사 미소원정대]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부터
세상 곳곳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미래를 위해
효성의 손과 마음을 나눕니다

더 많은 희망과 더 큰 웃음이 넘치는
더 좋은 내일을 바라봅니다

HYOSUNG



사랑의 쌀 나눔

사랑의 한뼘

문화유산
보호활동장애인
음악교육현충원
봉사활동



[4] 2020년 6월 30일 (화)

본 회 소식

제252호

동국장학회 장학금 6천만원 지급

서울 34명 · 경주캠퍼스 26명에게 1백만원씩



▲ 서울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이 5월28일 중강당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 전순표)는 5월28일 2020년도 1학기 장학금으로 60명(서울캠퍼스 36명, 경주캠퍼스 24명)에게 각 1백만원씩 6천만원을 지급했다.

모교 중강당에서 진행된 서울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 차원에서 박대신 총동창회장, 윤성이 모교 총장과 학교 및 장학회 관계자, 장학생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박대신 동창회장(동국장학회 이사 겸임)은 인사말에서 “총동창회는 ‘세상을 이끌 우수한 인재를 선배들이 만들어 냅시다’라는 슬로건으로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00억원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더많은 후배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선기 총동창회 사무총장(동국장학회 사무국장 겸임) 사회로 진행된 수여식에서 동국장학회는 36명에게 1백만원씩 3천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 선정은 13개 단과대학에서 각 2명과 지역·학과 동창회에서 10명을 추천받아 확정했다.

정치외교학과 장학금 전달

고용규 정치외교학과동창회장이 동국장학회 수여식장에서 학과장학금으로 후배 4명에게 각 1백만원씩 4백만원을 전달했다.

ROTC 울트라장학금 지급

ROTC는 윤재민 울트라장학위원장과 이인석 ROTC 총동문회장이 울트라장학금으로 1백만원씩 10명에게 1천만원을 장학증서와 함께 수여했다.

경주캠퍼스 온라인 장학금 수여

경주캠퍼스는 6월10일 '(재)동국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4명에게 1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장학생들은 장학증서를 들고 찍은 사진을 통해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국장학위원’ 참여 늘어

“후배위한 장학금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본회가 “세상 이끌 우수 인재를 선배들이 만들어 냅시다”라는 깃발을 내걸고 출범시킨 장학기금 100억 모금 캠페인 ‘동국장학위원’ 제도의 참여자가 늘고 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아직은 홍보나 모금 활동이 미진한 상태에서 속도는 느리지만 장학위원 제도에 대한 공감대는 동문사회에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학위원은 동국장학회 이사 홍파스님

(불교63,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이 매월 30만원씩 자동이체 신청한 것을 비롯 현재까지 50여명이 신청한 상태이며, 10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 등 금액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후배장학금 재원 확충의 안정된 기반 구축을 위해 시작된 ‘동국장학위원’ 제도는 동문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정기 기부하는 것으로 1차로 장학위원 5백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전남 신임 회장 고천석 동문



광주전남지부동창회 신임 회장에 고천석(정외76, 아모레퍼시픽 광남점 대표, 사진) 동문이 취임했다.

광주전남지부는 6월8일 백운산회관에서 총회를 열어 신임임원 선출 및 취임, 전임 박태현(경영66) 회장 및 박지우(정외75) 사무총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신임 회장 취임기념 선물 증정 등을 가졌다.

고 회장은 취임인사에서 “먼저 앞서서 행하고, 그 자세를 계율리 하지 않는다는 논어의 글귀를 가슴에 새기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자랑스러운 동창회를 만드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총장에 장근일(경영81), 감사는 최상철(행정78) 동문이 맡기로 했다.

행정대학원 임원 위촉장 수여

행정대학원동문회(회장 법타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이사회 겸 임원 위촉장 수여식이 5월26일 서울 중무로4가 스테이크호텔에서 열렸다. 회장 법타스님, 상임

부회장 및 부회장, 집행부 등 임원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2020년 주요 사업과 조직활성화 방안 등 현안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송파동문회 춘계모임 개최

송파동문회(회장 박오순, 법학74, 법무법인창조 대표변호사) 춘계모임이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최재성(불교74)동문 위로를 겸해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14일 오후 가락시장

가락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박대신 총동창회장을 비롯 80년대, 90년대, 2천년대 학번 등 젊은층 동문들이 대거 참석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를 위한

온라인 복지쇼핑몰 OPEN

할인가로 만나는 다양한 서비스
나와 내 가족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

6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복지쇼핑몰 서비스

- ① 쇼 – 평 – 다양한 타임세일 이벤트, 그리고 32만개의 상품
- ② 여 – 행 – 복지쇼핑몰이 직접 관리하는 전국 숙소를 소셜보다 저렴하게 예약
- ③ 자기계발 – 도서 구매 시 할인과 적립 혜택, 온라인 외국어 및 자격증 학습/오디오북 할인
- ④ 문화생활 – 영화예매권 상시 할인, 뮤지컬/연극/콘서트 최대 70% 할인
- ⑤ 건강관리 – 전국 검진기관 검진비 우대 혜택, 스포츠 센터/홈트레이닝 이용권 할인
- ⑥ 가정친화 – 홈케어, 펫시터, 아이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할인

주요 혜택 안내

24시간 특가 최저가 보장! 매일 바뀌는 상품	타임 세일 출퇴근길 특가에 주말엔 3% 더 할인	기차 예약 실시간 좌석지정 최대 35% 할인	레저 PLUS 전국 숙소, 소셜보다 저렴하게 예약
제니두 서점 10% 할인·5% 적립 100% 무료배송	영화 예매권 CGV·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상시 할인	건강검진 전국 250개 검진기관 검진비 우대 혜택	동국대 동문관 동문회 회원들의 상품을 판매/구입

동문전용관에 상품 등록을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오픈마켓 본부장 장명준, 010-3721-4877)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복지쇼핑몰 고객센터 1899-0522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앱스토어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베네카페를 검색 후 설치하세요!

APP설치 → APP실행 → 고객사 검색에서 동국대검색 및 선택 → 회원가입 클릭 → 본인인증 → 필요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 입력 후 회원 가입 완료 → 로그인 후 서비스 사용



제252호

본 회 소식

2020년 6월 30일 (화) [5]

e-제너두와 복지쇼핑몰 계약 체결

동문 판매금액 1% 후배 장학금 적립



▲ 본회 박대신 회장과 e-제너두 송동진 대표이사(오른쪽 세번째) 간의 복지쇼핑몰 제휴 계약식.

본회(회장 박대신)는 후배 장학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국내 상위 온라인 복지쇼핑몰 e-제너두(주) 송동진 대표이사와 '동국대학교총동창회 복지쇼핑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및 본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6월11일 오전 본회 김환배 사업재정위원장, 송일석 사업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명준 사업재정위원회 오픈마켓본부장, 임선기 사무총장 등 사무처 직원과 e-제너두(주) 김병욱 상품영업본부장, 정학수 영업본부 복지영업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7월1일부터 동문들에게 오픈되는 쇼핑 복지몰 운영사 e-제너두(주)는 20년 복지사업 운영 경험과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130여개 콘텐츠와 620만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제

공하고 있으며, 현재 970개 고객사 회원 100만명에 연 매출은 1천10억원이다.

본회는 회원들이 e-제너두 복지몰을 통해 상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가격의 1%를 장학금으로 지원 받는다.

이번 복지쇼핑몰 도입은 동문관 개설을 통한 동문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각 지부 조직 강화 및 동문 협력 기반 확충을 비롯 본회 장학사업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계약은 국내 최초로 대학동창회와 쇼핑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김환배 사업재정위원장은 "수익모델 창출인 복지쇼핑몰 구축이 총동창회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 후배 장학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바이칼 차가버섯과 판매대행 협약

단위조직 활성화 사업으로 확대 검토



▲ 박대신 회장과 서가인터넷내셔널 서미용 대표(오른쪽 두번째)간 바이칼 차가버섯 판매제휴 협약식.

본회 박대신 회장은 후배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4번째 수익사업으로 '바이칼 차가버섯' 공급업체인 (주)서가 인터내셔

널 서미용 대표와 6월11일 본회 사무실에서 판매대행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본회가 판매원인 서가 인터내셔널로부터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여 얻어지는 일정 수익금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사업재정 위원회는 동문 개인, 또는 지부(회) 조직 활성화 사업의 상품으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가버섯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요가 늘

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암을 치료하는 의약제로 활용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건강 기능식품이다.

차가버섯은 살아 있는 나무에서 자라는 유일한 버섯으로 수백년 동안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암을 치료하는 의약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과 바이러스를 방어해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차가버섯은 러시아에서는 16세기경부터 불치병을 치료하는 비약으로 전해져 왔다.

최근 차가버섯이 주목 받는 이유는 인류가 예상치 못한 큰 재앙으로 다가온 코로나19로 자가 면역력이 화두가 되면서 면역력증진은 물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총동창회 김환배 사업재정위원장(화
공68)이 동창회의 수익사업을 위해 여
러 가지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사업재정위원회 수익사업 배경에 대
해 설명해주십시오.

"28대 총동창회는 상임부회장단에 의해 제안되고 의결되는 형태로 효율적이고 성과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5개 분과로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즉 흥보, 조직강화, 사업재정, 문화, 소통분과위원회 등이죠. 이중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상임부회장을 위촉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업재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 위원회는 8명의 상임부회장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수익사업 및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좋은 품목 선정해 동창회 재정확충에 일조하겠다”

천연 제설제, 전기온돌시스템, 고려 불화, 바이칼 차가버섯 등 수익사업 다양

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소개했다.

◆ 고려 불화 판매 : 70여 년 단청과 고려 불화 작품 활동을 해온 인간문화재의 작품

◆ 바이칼 차가버섯 : 소련 바이칼호수 주변에서 생산되는 원물을 가공 생산한 건강 기능 식품

◆ 온라인 폐쇄물 : e-제너두(120만 회원 등록)에 동국란 개설 및 제너두 일반 계정에 등록하여 동문들이 생산하는 제품 홍보 및 판매

◆ 기타 : 상조 가입, 제주렌터카, 온열 의자, 열회수 환기장치, 에너지 패널, 친환경 제설제 등 동문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는 품목.

이밖에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향후 추진 방향을 문화상품 개발, 환경개선을 위한 항바이러스시스템 방제 산업과 특히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전력하고 있고 현재 상당 부분 기반 조성과 진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점이나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창회가 수익사업을 시행한 것은 본 동창회뿐 아니라 여타 대학동창회에도 그 실례가 없어, 모든 것을 새로이 구상하고 절차 및 규정을 만들어 시행 하려 하니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창회 사무처 직원의 절대적 도움을 받아 시행된 바. 도움을 주신 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제 우리 동창회는 35만 동문을 가지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며 자기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한

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 내 집안과 다름 없는 동창회의 자립에 다가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해 한 마디 덧붙입니다?

"보다 좋은 상품과 품목을 선정하여 동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업재정위원회 산하에 오픈마켓본부, 건설사업본부, 상품 개발 및 유통 본부를 신설하여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이제 시작이지만 동창회 백년대계를 위해 자립을 위한 초석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2020년 6월 30일 (화)

서울 수락산 도안사에 출현한
평화와 행운의 길조
'파랑새(관음조)'

수락산 도안사 정기법회 및 기도

- 새해 해맞이 특별기도 : 양력 1월 1일~3일
- 신중기도 : 매월 음력 1일~3일
- 약사기도 및 방생 : 매월 음력 8일
- 지장기도 : 매월 음력 15일~18일
- 관음기도 : 매월 음력 24일
- 108평화보궁기도 : 매월 양력 18일

대한불교조계종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5길 99 전화: 02-936-5936, 931-5557 팩스: 02-935-5936

전북지방경찰청장
JEONBUK PROVINCIAL POLICE AGENCY

조 용 식
치안감 / 경찰학 박사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입니다"

(우)5496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Tel 063-280-8010

밝게 알고 올바르게 행하자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능인고등학교**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송 완식 (도진스님)

황악산 중암 회주,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안양시 명예시민
안양시 노인복지관 관리이사, International NGO the Promise 공동대표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 Tel. 054-436-66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 Tel. 053-232-9175

(주) 지 엘 이 앤 씨
G.L FIRE-FIGHTING & FIRE-ENGINEERING

전문 소방 공사 전문
소방 자재 납품 전문
도면 적산 견적 전문

대표이사
이 기 영
(국민윤리학과 1982)

18384 경기도 화성시 반월길 56 (반월동) Mobile. 010.8766.7169
Tel. 031-267-1195 | Fax. 031-267-1196 | E-mail. ieegy77@naver.com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Market Intelligence
for Technology

J JS AirTech, Inc.

대표이사
안 정 상
(화학공학과 1985)

고객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Start Your Internet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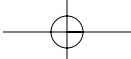
(주)제이에스에어텍
www.jsone.kr

| 본 사 | 1044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616-621호
Tel. 031-994-8311 Fax. 031-994-8399

| 부산사무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58, 302호
Tel. 070-8673-8305 Fax. 070-8673-8400

| 전주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60, 세움밸리피아 1310호
Tel. 070-8673-8300

Mobile. 010-5270-8063 / E-mail. topahn1004@hanmail.net



제252호

인 터 뷰

2020년 6월 30일 (화) [7]

‘동국장학위원회’ 도입 제안 –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모교에서 많이 얻었으니 후배들에게 베풀어야지요”

서울 종로구 숭인동 언덕에 자리잡은 대한불교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 1호선 동묘역에서 낙산 방향의 언덕배기로 10분정도 오르면 주택지 가운데 우람하고도 단아한 모습의 사찰이 나온다. 불교학과 63학번 홍파스님(77)이 바로 관음종 총무원장이자 묘각사 주지이다. 홍파 스님은 자애롭고 자상한 얼굴이다. 잔잔한 평화가 어려있다. 3배를 올리고 마주앉으니 책상 앞에 놓인 커다란 대야 같은 유리그릇에 담긴 차를 나무 국자로 훠저으며 필자에게 한잔 따라주신다. 옅은 밤 색깔의 차는 달콤은은한 맛인데 다 마시면 또 채워주신다. “무슨 차냐”고 물으니 보이차에 흥삼을 넣은 것이라며 “속이 편하고 몸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했다. 따뜻한 품성을 지닌 분이라고 느껴졌다.

홍파 스님은 모교 불교학과 재학 시절 대학생불교연합회를 창립했으며, 국군 군법사 제도를 두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불교계의 크고 작은 연대의 자리에는 늘 홍파 스님이 있었다. 그래서 스님에게는 ‘단합과 소통의 아이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는 조계종을 비롯 30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직을 31년간 맡았다. 또 수십년간 남북 불교, 한일 불교, 한중일 불교 연대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 기구의 대표를 맡으면서 아시아 불교계의 친선과 단합을 이끌었다.

‘스님’이라면 좋은 뜻으로는 개성이 있는 신분이지만, 자기 원칙에 충실한 나머지 아집과 독선적인 품성을 지닌 경우가 많다. 이렇게 각자 개성이 강하고 이해가 다른 30개 종단을 31년동안 무난하게 이끌어 왔다면 그 행정력과 조직력, 인품을 헤아릴 수 있다. 혼신과 배려와 봉사의 정신이 없으면 이를 수 없는 성과일 것이다.

그런 스님이 꾸준히 지금까지 모교에 약 3000만원, 총동창회에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근래에는 (재)동국장학회 이사로 참여해 매월 30만원의 기금 약정을 하고 ‘후배사랑 장학위원회’ 제도 도입 등의 장학 기금 확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 동국장학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 기부하는 장학 위원 500명 확보를 1차 목표로 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 적극 뛰어든 배경은 무엇입니까?

“114년 전통의 동국대학교 동문이 35만명을 헤아립니다. 그런데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이 고갈되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100년 넘은 학교의 총동창회 장학기금이 고갈되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는 장학회 이사직만으로 안주해선 안된다고 보고, 동



문 35만명 중 단 1%인 3500명이라도 참여해 장학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제안합니다. 동문들이 사회지도층으로 활약하는 것도 모교에서 학문을 잘 닦은 인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돌려주는 것도 자비의 마음이자 자기 섬김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지난번 매월 20만원씩 내기로 약정했는데, 기왕 나선 김에 오늘 다시 10만원 올려 매월 30만원씩 내는 것으로 약정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 스님께서는 지난해 11월 폐낸 잠언집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에서 ‘다른 견해’를 설파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세상은 자

기 주장과 견해가 옳다며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툼을 멈추는 방법은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어디에도 길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스님의 품성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대목 같다.

– 묘각사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외국인 템플 스테이입니다. 묘각사는 종로구 관광 지정 사찰이다. 템플스테이 우수사찰로 10년째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만5천명의 외국인이 다녀갔는데 주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입니다. 불교 국가가 아니라 서구 중심의 템플스테이여서 한국불교와 한국문화를 전수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유서 깊은 명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이낙연 전총리 등이 묘각사를 찾았다.

– 장학기금 조성에 관해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총동창회가 매월 일정금액 정기 기부자를 500명 목표로 하고 있지만, 35만 동문의 1%(3500명)는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배들의 면학 정진을 위해 지원하는 동국장학회가 매년 보유기금 부족 현상을 겪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문들의 사회적 명성은 거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국 캠퍼스에서 익힌 학문의 성과가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그 성과를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은 선배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이계홍 국문65, 본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체기사는 총동창회 홈페이지 www.dongguk.info ‘동국의 창’에서 볼수 있습니다.

동국장학위원회 신청 현황

(2020년 3월 1일 ~ 6월 29일 접수분)

100만원 일시불

월 10만원 자동이체

강진수 (81법학)

윤병관 (82화공)

월 5만원 자동이체

전영화 (65경행)

김환배 (68연료공학)

월 3만원 자동이체

월 1만원 자동이체

법타스님 (67인철)

이송림 (65사과대)

이영균 (68수자원공학)

김경일 (67연극)

장봉현 (68경행)

이학균 (77사회교육)

허창식 (75영문)

이상호 (89산공)

임선기 (79경행)

김영문 (06국문)

정광시 (80경대원)

서분도 (82국윤)

이건열 (82경행)

이연신 (85연극)

조한진 (64법학)

이판우 (89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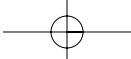
최윤희 (07사과대)

월 30만원 자동이체

홍파스님 (63불교)

최대식 (79회계)

월 자유금액 이체



[8] 2020년 6월 30일 (화)

4.19 60주년

제252호

4.19 주역 특별 좌담

“4.19는 동국대, 4.18은 고려대”

- 일시 : 2020년 5월 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인사동 총동창회 회의실

< 참석자 >

박영식 (정치57)	보훈처 4.19혁명국가유공자회 고문
최재오 (법학57)	前 아람통상 대표
현태길 (정치57)	前 진로그룹, KBS 4.19 60주년특집 증인
김종규 (경제58)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라동영 (불교59)	동국대 4.19혁명동지회장
박홍규 (농학59)	前 동국대 4.19국가유공자회 사무총장
윤청광 (영문59)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 4.19 주역 좌담회에 참석한 최재오, 박영식, 현태길, 김종규, 박홍규, 라동영, 윤청광 동문(왼쪽부터)

1960년 4.19 혁명은 동국대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동국대 시위대가 경무대(오늘의 청와대)에 맨먼저 진출함으로써 4.19 혁명을 완성시켰다. 하루 앞서 4월 18일 고려대 시위대가 정치깡패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면서 서울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면, 다음날 동국대가 경무대에 맨먼저 진출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함으로써 마침내 4.19 혁명이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동국대의 4.19 역사 평가는 과소평가되고 있다.

올바른 역사 평가를 위해 동문사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따라서 당시 동국대생들이 어떤 시위를 벌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린 기폭제가 된 당시 동국대생들의 활약상을 시위에 직접 참가한 동문들을 모시고 특별좌담을 갖는다. <편집자>

- 4.19 당시 동국대생들의 시위 상황을 현장 중심으로 얘기해보시죠.

▲윤청광=시위 상황을 말하기에 앞서 4.19 혁명을 결정적으로 이끈 동국대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당시를 돌아보건대 4.18은 고려대, 4.19는 동국대였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4.19는 동국대생들이 맨먼저 경무대에 진출함으로써 혁명이 완성되었다. 4.19를 평범한 학생 데모에서 민주혁명으로 승화시킨 것은 동국대 시위대가 외친 단 한마디, “경무대로 가자!”에 다 담겨있다. 자유당 독재의 심장부인 경무대로 진출함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달성한 토대가 되었다.

그날 동국대학교가 없었다면, 그리고 “경무대로 가자!”라는 외침이 없었다면, 4.19 혁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듭 밀하지만 1차, 2차, 3차 경찰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리고 총탄이 빗발치는 사선을 넘어 경

무대로 진출했던 동국대 시위대의 숭고한 항거 정신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도 동국대의 이런 값진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잊혀져가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다.

나는 당시 동대신문 기자로 시위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했다. 기자 신분이었지만 시위대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동국대생들은 4.18 고대생 습격사건에 분개해 4월 19일 1교시를 마치자마자 일제히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끓는다.

▲최재오=동국대는 4.19에 앞선 4월7일 각 단과대학, 학과별 회의를 가졌으나 시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동국대학교 학내 사정은 백성욱 총장에 대한 배척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백 총장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내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어서 굳이 따지자면 친 이승만계였다. 관계 성향의 학도호국단이 방해했기 때문이다. 학도호국단은 학생들로부터 배척받고 있었는데, 4.19 당일도 운영위원장 등 학생 간부들이 교문에서 시위를 막았다. 물론 다른 대학 학도호국단도 ‘데모 안 한다’는 각서까지 썼다고 한다(호국단은 추후 시위 가세). 이 때문에 시위가 무산되는 듯했다. 그런데 4.18 고대 시위대에 대한 깡패들의 습격 사건이 발생했다. 그중 사람이 죽었다는 신문 보도도 나왔다. 사망자는 오보였지만, 동국대생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법학과 4학년 김만율, 오주환, 나 셋은 그 소식을 듣고 신당동 김만율 하숙방에 모여 시국을 개탄하고 내일(4월19일) 동대생들도 시위하도록 앞장서자고 결의했다.

- 4.19 시위는 이심전심으로 참가했군요. 참가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지요.

▲박영식=대학가에는 이전부터 민주당 비밀 당원들이 있었다. 동국대학 정치과도 마찬가지였다. 고려대

이기택, 중앙대 김인겸, 단국대 김상현 등이 활약했으나 동국대가 전국 대학의 모의국회와 웅변대회를 휩쓸 정도로 주도적이었다. 동국대 시위가 4.19 당일 이심전심으로 나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폭발성이 내연하고 있었다. 우리는 4.19 이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빼리를 제작해놓고 준비중이었다.

우리는 4.19 당일 ‘동국대학교’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2,000~3,000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자 그 때 서울 거리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소규모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동국대가 나서자 용틀임이 분출한 것이다.

국회의사당 앞에 이르러 동국대 시위대 중 누군가가 “경무대로 가자”하고 외쳤다. 그 외침과 동시에 시위대를 이끌고 광화문 네거리로 지나 중앙청 앞으로 진출하자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따랐다. 어느 대학의 4.19 50주년사를 보면 그들이 다 한 것처럼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다 확실히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라동영=동국대생들은 압성이 강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전통이 있었다. 서울운동장에서 축구, 야구 경기에 동국대가 떴다 하면 타 대학이 꼼짝 못했다.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동국대가 4.19를 치고 나간 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당시 주요 연락책은 호국단이 아니라 각과 대표들이었다. 일본식 집으로 된 도서관에 각 학과 대의원들이 모여 디데이를 정했다. 강의가 많은 날이 화요일 둘째 시간인데, 대의원들이 교수들에게 강의를 끌내달라고 요청하고, 오전 10시 일제히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래서 숫자가 많았다.

- 시위 코스를 말씀해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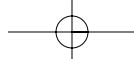
▲박영식=4.19 당일 김운태 교수의 첫 강의가 끝나고 2교시 수업 시작할 때, 누구랄 것이 없이 “나가자!” 하고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 교문이 굳게 닫히고 학도호국단과 학교측, 중부경찰서 경찰이 진로를 막았으나 학생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쉽게 저지선이 뚫렸다. 시위대는 교문을 박차고 퇴계로로 진출했다.

▲최재오=우리는 3~4학년이 주축이 되어 각 학과별로 모여 교문(현재의 후문) 앞으로 쏟아져 나갔다. 호국단과 중부서 경찰 진압대가 교문 앞에서 저지하는 바람에 심하게 부딪쳤고, 이 과정에서 법과 3년 김태근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시위대가 중부서로 몰려가 연좌시위를 벌이고 김태근을 구출해낸 데 이어 을지로로 나와 내무부(現 을지로 입구 외환은행) → 반도호텔(現 롯데호텔) → 시청 → 국회의사당(現 서울시의회) → 광화문 네거리 → 해무청(現 종합청사 자리) → 중앙청 → 효자동 → 경무대(現 청와대) 코스로 진출했다. 처음 산발적으로 움직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직적으로 움직여 따르는 시민들이 많았다.

우리는 주황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쓰인 ‘동국대학교’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학교에서부터 경무대 앞까지 밀고 들어갔다. 이 플래카드가 동국대의 4.19 역사성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다. ‘동국대학교’라는 교명의 대형 플래카드는 유엔학생부인 법과 4년 김남수, 이용익, 오주환, 오계태가 학도호국단에 들어가 간부들과 다툼 끝에 반출해온 것이다.

- 경무대 앞의 상황을 설명해주시지요.

▲현태길=우리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거쳐 중앙청



“역사 물줄기 바꾼 역할 비해 과소평가 안타깝다”

앞 경기도청에 이르자 하얀 가운 차림의 의대생들이 나타났다. 수도의대생(현 고대 의대)들이거나 서울의대생으로 보인 학생들이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동성고 학생들이 따랐고, 시내의 고교생들이 따라왔다.

태평로 국회 의사당 앞에 이르자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무질서했으나 동국대 시위대가 이들을 선도하자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이때 동국대 대오 중 누군가가 “경무대로 가자!”고 외쳤는데, 이것이 ‘민주혁명’의 방아쇠가 당겨진 신호탄이었다. 중앙청 옆 해무청(해양경비청, 오늘의 종합청사 자리)에 이르자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저지해 양 진영간에 밀고 밀리는 과격 양상이 벌어졌다. 노상에는 도로 공사를 위해 깔린 자갈이 널려있었는데 시위대들이 이 돌로 투석전을 벌였다. 땅에 물기 위해 갖다 놓은 대형 상수도관을 동국대 시위대가 방패삼아 앞으로 굽리며 진격해 들어갔다.

▲라동영=동국대 시위를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4월 19일 오전 10시경 교문을 나와 중부경찰서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뒤 내무부(을지로 입구) 앞에서 투석전을 벌였다. 11시경 시청 앞에서 다시 연좌시위를 하고, 곧 국회의사당으로 진출했다. 시위대는 동국대생 이외 그리 많지 않았으나 동국대생의 함성 소리에 행인 등 시민들이 어느새 모여들어 가세했다. 이때 연대생들은 신촌에 터리에 있었고, 중앙대는 용산역-서울역 사이에 있었다. 수도의대가 경기도청에 따라왔고, 성균관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서울문리대와 서울의대가 교문을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다.

▲박홍규=농학과 학생들은 농학과 실습장에 가려고 준비중이었다. 실습장은 태릉 쪽에 있었다. 그런데 교문이 막히고, 규율부에서 시위대를 저지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실습장으로 가는 대신 시위대에 합류했다.

경찰은 중앙청 앞-효자동-경무대 앞 세군데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방어했으나 동국대 시위대가 상수도관과 전차를 밀고 가며 경무대 200m 앞까지 진출했다. 우리의 진격에 물대포를 쏘던 소방관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고, 경영학과 2년 전대길, 양승조가 소방차를 탈취해 경무대방향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때 발포가 나왔다. 동국대생들이 총알받이가 되고 말았다. 나는 왼쪽 빨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때가 오후 1시30분 쯤이었다. 총을 맞자 온 몸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느낌이었으나 본능적 위기의식으로 어느 집 담벼락을 뛰어넘었다. 다리를 다친 몸으로 담장을 뛰어넘은 것이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하다. 그 집에는 시민 시위대들이 벌써 숨어들어와 있었는데 총상을 입은 나를 발견하고 지나는 지프 운전사에게 부탁해 나를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연세의대)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미 그곳에는 사망자와 총상을 입은 학생들 수백명이 들어와 있어서 나는 병실 대신 복도에 누워서 치료를 기다렸다.

- 동국대생들의 희생자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김종규=경찰이 효자동 쪽 중앙청 담벼락 안에서 최루탄과 빨간 물감이 든 물대포를 마구 쏘아댔다. 경무대로 향하는 시위대를 차단하는 한편으로 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쏘아댄 것이다. 최루가스에 눈이 따갑고 물대포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사직동 대신고교 인근 중곡식당으로 들어갔다. 중곡집에 있는 얼마 후 경무대 방향에서 요란하게 총소리가 났다. 집중 발포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시민을 향해 총을 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총소리를 듣고 뛰쳐나와 겁없이 총탄을 뚫고 경무대 인근까지 진출했다. 그땐 무서운



▲ 동국대의 4.19 역사성을 증명하는 상징 '동국대학교' 대형 플래카드를 앞세우며 맨 먼저 경무대로 진출했다.

줄 몰랐다.

다고 본다.

▲박영식=경무대 앞에서 노희두 군이 현장에서 숨지고, 26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태길=효자동 입구 1차 바리케이트 친 쪽에서 경찰이 처음 공포탄을 쏘았다. 진명여고 앞에서도 공포탄을 쏘았다. 동국대생들이 무시하고 날아오는 최루탄을 되받아 경찰에게 던지면서 경무대로 압박해 들어갔다. 최루탄은 바로 터지지 않고 몇 초 뒤 터지니 받아 던져도 되는 것이었다. 제2 방어선을 뚫고 경무대 앞 3차방어선으로 몰려가는데 그때 경찰이 발포했다. 내 눈앞에 총탄이 날아오는데, 그때 소방차 위에 있던 학생이 아래로 떨어졌다. 머리에 총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학생이었다. 달려가 부축해 나오면서 지나가는 미군 차에 그를 실어 병원으로 보냈다. 구출된 학생은 당시 강문고 3년 이영민(포천군수 역임)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이영민을 부축해 나온 사진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라이프지에 특종 보도되었다.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 백형인 씨가 찍은 사진인데, 계엄령으로 국내 신문에는 보도되지 못하고 대신 미국의 저명한 시사잡지에 실려 세계적 특종을 한 것이다.

- 4.19 이후 이야기를 해보지요.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오=동국대생들은 이승만 하야가 발표되자 즉각 종로경찰서를 접수하고 질서 유지에 나섰다.

▲김종규=우리가 거리 청소를 하며 교통정리를 하자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시내 중심가 질서유지를 동국대생들이 선도했다. 시위로 전쟁 폐허처럼 돼버린 서울의 중심가를 우리가 앞장서 ‘질서를 지킵시다’라는 땀을 두르고 도로 청소를 하고, 교통정리를 했다. 그 사진이 도하 각 신문에 크게 실렸다.

▲최재오=동국대가 4.19 주체가 되었는데도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 역사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위 참여자들이 나서고, 매스컴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언론계에 동국인 출신이 많지 않은 것도 불이익을 당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모 대학의 경우 활약상에 비해 언론에 크게 반영되고 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과소평가 이면에는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다. 초창기 4.19 유공자를 선정할 때,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4.19를 폄하한 결과, 정권에서 중책을 맡았던 4.19세대들이 학생 혁명의 가치를 적극 내세우지 못한 시대환경적 요인도 작용했

▲박홍규=다시 반복하자면, 4.19혁명은 5.16 쿠데타와 12.12 반란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 이들 세력은 4.19를 부정했다. 4.19 공로자도 유공자 개념으로 수용하지 않았고, 이들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4.19세대들이 침묵하거나 외면해 결과적으로 4.19 정신 자체가 증발해버린 인상이었다. 지금은 유공자로 등록되어 연금이나 나오고, 명예가 되는 신청자가 많아졌다. 너도나도 등록 하니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러다 보니 워터제 비슷하게 인원을 안배하게 돼 4.19 주역이었던 동국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동국대가 4.19 주역이라는 역사가 묻히고, 유공자도 누락되니 안타까움이 많다. 총동창회와 모교측에서 4.19 유공자 찾기와 역사복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박영식=모두가 리더라는 아집 때문에 결집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 4.19를 기념 사업에 대해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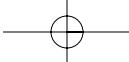
▲라동영=4.19동지회장을 7년째 맡고 있다. 모교 교정에 4.19 혁명길과 시위 장소들을 지정해 남산 코스 관광 때 연동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박대신(총동창회장) : 좌담회 당일 모교 입학식 참석으로 좌담회에 뒤틀게 참석해 별도로 멘트)=현재 만해동산에 세워진 동우탑은 4.19가 일어난 해인 1960년 11월 25일 총학생회에서 건립했다. 4.19 당시 경무대 앞에서 총을 맞고 희생된 노희두 동문(법과3)과 1964년 6.3 한일회담 비준 반대 시위 때 희생된 김중배 동문(농학과 3)을 기리는 비문이 1966년 4.19 기념식 때 총학생회 이름으로 동우탑에 새겼다. 모교와 총동창회는 해마다 4.19기념 등산대회를 열고 선배들의 정신을 잊고 있다. 총동창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무대 진출 선봉에 섰던 선배들의 정의로운 업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모교 교정에 ‘4.19혁명로’ 지정을 모교측에 제안하고 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 마련은 물론, 동국대학교의 4.19 업적이 제대로 평가되고, 선배들의 고귀한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문 제현의 적극적인 동참과 단합의 정신을 바란다. 무엇보다 개인적 아집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뭉쳐주기를 당부한다.

<이계홍 국문65, 본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체기사는 총동창회 홈페이지 www.dongguk.info
'동국의 청'에서 볼수 있습니다.



[10] 2020년 6월 30일 (화)

4.19 60주년

제252호

동아일보 지면으로 ‘4.19 혁명’을 완수한 이강현 동문

딸 이정옥 前 KBS 글로벌본부장이 말하는 ‘아버지 이강현 기자’



4.19 혁명의 중심에 동국대가 있었다면, 신문지면으로 이승만 독재에 결정타를 날린 언론계 동문이 있었다. 4.19 당시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였던 故 이강현 동문(국문46, 사진)이 주인공이다.

이 동문은 1960년 4월 11일 경남 마산(오늘의 창원시) 앞바다에서 눈에 쇠루탄이 박힌 채 떠오른 김주열 군(마산상고 1년)의 시신을 참혹한 사진과 함께 현장 고발 기사를 써서 4월 14일자 동아일보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4.19 혁명의 서막은 2월 28일 대구에서 올랐지만, 동아일보의 김주열 군 시신 사진과 현장 고발기사로 전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강현 동문은 당시 35세의 혈기 있는 사회부 명기자였다. 그는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를 고발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부정선거 실태를 현장 르뽀 기사로 고발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 군중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경찰의 만행과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벌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취재,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공무원들이 투표용지 번호표를 확인해 공개투표를 강요하고, 투표자 수보다 2배가 많은 유령 유권자, 3인조, 6인조, 9인조 투표와 도깨비표, 박쥐표, 올빼미표, 나

이론표, 피아노표 등 희한한 방식의 투개표 부정을 고발했다. 투표용지를 개표장 뒷마당에서 불태워 없애고 새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현장도 잡았다.

이 과정에서 행방불명이 된 김주열 군이 바다에서 참담한 모습으로 떠오르자 이 동문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시신 사진과 함께 얼굴에 죄루탄이 박힌 각도 까지 그린 도면을 신문 1면에 크게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전국의 학생 시민은 물론 전국의 어머니들 까지 분노해 거리로 나섰다. 뉴욕타임즈, 타임지 등 외신도 이를 크게 인용 보도했다.

최근 이같은 내용을 전한 이 동문의 딸 이정옥씨(전 kbs 글로벌센터장)씨. 그는 “자신은 한국사회에서 보기 드문 부녀 기자의 이력을 갖고 있다”라면서 “아버지는 강직하고, 용기있는 분이셨다”고 회고했다.

“아버지는 법원 검찰에서 발표하는 보도문을 다른 기자들과 달리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고 하셔요. 숫자만 수첩에 기록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신문을 보면 한 줄도 빼먹지 않고 중요 대목을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두뇌 녹음기’가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 완벽하게 보도했다고 해요”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은 군부정권에 비판적인 이 동문을 여려모로 회유하려 했다. 어느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동문에게 지방 순회에 나서는 헬기를 같이 타고 가자고 제의했다. 이 무렵 박 정권은 신문 윤리위원회법을 강제로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 이 동문은 앞장서서 이같은 행태를 저지했

다. 이때 이 동문은 한국기자협회장을 맡고 있었다.

“아버지는 박 대통령의 헬기 동승 제의를 거절했어요. 대신 mbc의 이환의 기자가 탑승, 수행했다고 하더군요. 그후 이환의 기자는 mbc 사장이 되었고요.”

이강현 동문은 동아일보 지방부장, 출판부장을 지내고, 1965년 창간된 중앙일보로 자리를 옮겨 사회부장,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판매국장을 역임했다. 중앙일보에선 ‘영원한 사회부 기자’로서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했다. 재벌기업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와병을 얻어 회사를 퇴사하고 투병 중 1977년 5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이강현 동문이 있었기에 4.19 혁명의 변곡점을 맞았고, 따라서 그는 민주혁명의 대업을 완수한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린 주인공이 되었다.

한편 이정옥 kbs 전 본부장도 아버지의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의 정신을 닳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kbs 사장 공모에 응모했으나 현 양승동 사장에게 밀린 바 있다. 그러나 ‘30여년 경력의 베테랑 방송기자’, ‘현장통 방송기자’ ‘최초 여성 파리특파원’이라는 이름을 얻고 퇴직했는데, 이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유전적 훈장’ 같다”고 소개했다.

〈이계홍 국문65, 본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체기사는 총동창회 홈페이지 www.dongguk.info ‘동국의 창’에서 볼수 있습니다.

엔노블이 동국대학교 동문 및 가족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동문전용상담 02-3445-2557)



No.1 노블레스 결혼정보
결혼엔 엔노블

品格있는 아름다운 만남

대표상담전화
1577-2050
www.nnoble.co.kr



23 명문대동창회 제휴 | 54 관공대기업 제휴 | 3,913 전문직 종사자 | 712 100억대 이상 자산가 (2020. 6월 기준)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11(신사동, 엔노블타워) 해외지사 | 뉴욕 718-487-9751 L.A 213-342-8566 신고번호 | 서울-강남-국내-15-0005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 211호(우동, 트럼프월드센텀)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98, 203호(연동, 갤럭시연동빌)

제252호

개교 114주년 기념식 거행 장기근속상 · 동국학술상 · 동국가족상 등 시상



▲ 개교 114주년 기념식이 모교 중강당에서 좌석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거행됐다.

모교가 5월8일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정된 주요 내빈 및 근속상 등 각종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5월7일(목) 본관 중강당에서 간소하게 거행됐다.

윤성이 총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동국 발전’이라는 불변의 명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서로 돋고 화합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기를 바

란다”고 당부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총동창회는 ‘아름다운 동행, 빛나는 동국’의 한 축으로서 모교 발전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기념식 행사는 △근속상 수여 △동국학술상/우수연구자상/우수논문상/대학원학술상 수여 △공로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국가족상은 황성순(관광경영97, 모교 경주병원 근무) 가족이 수상했다.

경주캠,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선정

경주캠퍼스가 5월22일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부의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수의 학과가 참여, 융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고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주캠퍼스는 스마트안전보건분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2년간 총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경주캠퍼스는 안전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간호학과가 융합된 재난대응서비스 전공을 신설하고 스마트 안전보건 신산업분야의 개발과 지역사회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대표이사 / 회장 김재경 (경제학과 1961卒)
TEL. 032) 812-2351/4 FAX. 032) 812-3024

대형 국고지원사업 잇따라 수주 최근 한달사이 5개 사업 205억원

모교가 최근 정부의 대형국고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이에 따른 사업 수주 연구비는 5개분야 205여억원에 이른다.

문화학술원장 서인범 교수가 5월19일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플러스(HK+) 사업에 선정되어 7년간 84억원을 수주한 데 이어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 2단계(교육부) ▲대학 ICT연구센터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식약처연구용역개발사업 등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6월8일 발표된 ‘대학 창의적 자산실용화 지원(BRIDGE+)사업’은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조직 기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39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모교의 산학협력 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융합교육원 김지희 교수가 수주한 ‘대

학ICT연구센터지원사업’은 High Performance Knowledge System 개발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6년간 44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모교 특성화 분야(D.N.A) 활성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가 주관하는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은 스포츠문화학과 정진숙 교수가 수주한 사업이다. 3년간 20억을 지원 받는 이 사업은 발달장애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치료 기술 개발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바이오메디융합연구원장 신한승 교수는 ‘2020년 식약처연구용역개발사업’을 수주해 3년간 18억을 지원 받는다. 이 사업은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중금속, 신종곰팡이독소, 자연독소, 사고대비화학물질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및 유해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통한 오염 실태 조사와 평가를 수행한다.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10억원 조성

2천명에게 50만원씩 지급

모교는 6월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에게 50만원씩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장학금 재원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동국대 ‘코로나19 극복 모금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이 캠페인에는 교수, 직원, 동문, 불교계의 동참이 이어졌다.

5월30일 현재 정각원 1억원, 직원노동조합 및 처부장회 8천만원, 공과대학 4천만원, 정책위원 2천만원 등 600여명이 동참해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장학금은 올해 1학기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 2,000여명을 선정해 7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경주캠 정책위원 5천4백만원

이영경 경주캠퍼스총장을 비롯한 정책위원 11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6월10일 학교 발전기금으로 5천4백만원을 기부했다.

학장과 학과장 37명도 6월16일 5천5백만원을 기부했다. 6월23일에는 교무위원 12명이 3천5백만원을 기탁했다.

장례를 돋는 사람들입니다. 진심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도(道)

당신이 돌아온 날
누구보다 아름답고
존경합니다
남가 고인의 명복을 빙니다

<http://huansugi.modoo.at>

휴안수기상조 상담문의 010.9665.8110

100% 후불제 상조

동문님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사전 신청시 영정사진 제작 및 관내 무료운구 이송 서비스 제공



음악, 드라마, 예능, 스포츠, 패션, 뉴미디어, 라이프스타일 등을
아우르는 아시아 최고 엔터테인먼트 그룹



DMITRY YJ TAK

탁 영 준

CMO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48

Tel 02 6240 9534

Fax 02 6240 9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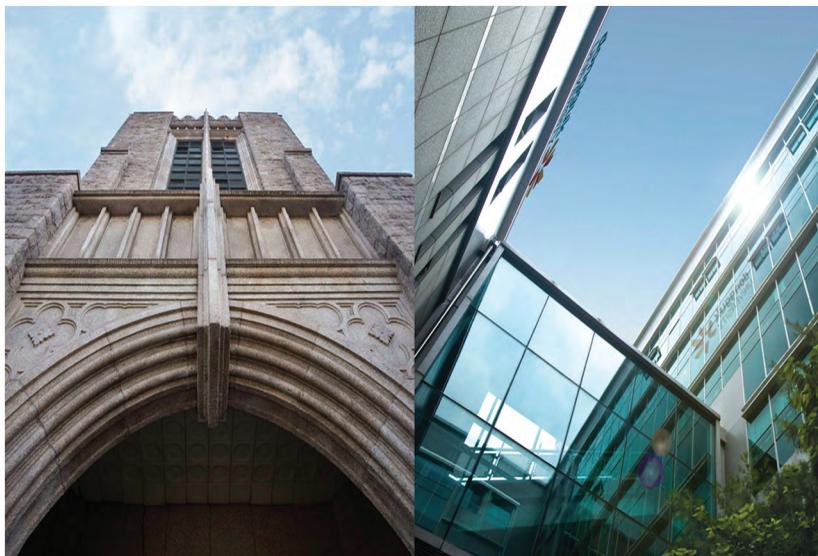
www.smtown.com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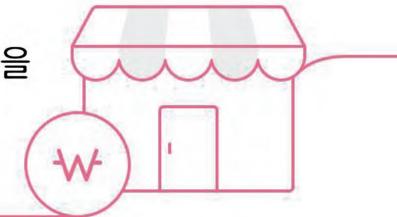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사장님을
하나은행이 응원합니다.



김 흥 영

(영어영문학과 88入)

공항로지점 지점장

FRM / CRA

공인증개사

076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26 (화곡동)

Tel 02.2695.1111 (115) / Fax 02.6240.9559

010.2433.3157

khyoung@hanafn.com



大平商社株式會社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표이사
최 병 렬
(경제학과 86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78길 27 (역삼동 827-23)
Tel. 02-501-2767 / Fax. 02-501-4125

010.9121.8947 · byungrchoi@yahoo.com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252호 대통령 경호처장 유연상 동문

유연상(경행85)동문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5월19일 임명장을 받았다. 청와대 경호실이 출범한 이후 첫 공채 출신으로 내부 승진해 수장이 됐다.

유 처장은 “전임 처장이 닦아 놓은 ‘낮은 경호, 열린 경호, 친근한 경호’를 후임 처장이 공고화하면서 대통령 내외의 절대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1992년 대통령 경호처에 공채 3기로 들어와 28년을 몸담았다. 경호처 경호본부 경호부장, 감사관, 경비안전본부장, 차장 등을 지냈다.

통일연구원장 고유환 동문

고유환(정외76, 모교 북한학과교수) 동문이 4월30일 통일·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신임 원장(차관급)에 취임했다.

통일연구원은 1991년에 개원한 국내 대표적 통일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고 신임 원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위원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통일·

북한문제 전문가다. 임기는 3년이다.

제21회 4.19문화상 수상

김종규(경제58,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삼성출판박물관장)동문이 사단법인 4월회(회장 김용균)가 주는 제21회 4·19문화상을 수상했다.

권태형·권태상 형제 1천만원

형제인 권태형(연영65) 동문과 권태상(국어교육77, 사진 오른쪽) 동문이 6월2

일 윤재웅 사법대학장에게 1천만원을 기부했다. 로터스관건립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국어교육과장학 등 지금까지 두 형제가 모교에 전달한 기부금은 총 7천만원에 달한다.

이만수·조충미 부부 장학금 기탁

이만수(체교81)·조충미(교육81)동문 부부가 “4월26일 치른 아들 결혼식에 많은 동국가족들이 참석과 화환 등으로 축하해 주어 감사했다”면서 본회에 장학기금 50만원을 보내왔다.

권오춘 동문, 18명에게 장학금 지급

초허당 권오춘(영문57)동문이 2020년 1학기 장학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2명에게 각 1백만원씩 지급했다. 권

동문은 지난해 특별장학기금으로 6천만원을 기부했으며, 이에 따라 5년간(2019년~2023년) 매년 12명에게 1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기초과학분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도 올해 이과대학(수학, 화학, 통계학, 물리학, 반도체과학), 바이오시스템대학(생명과학) 3학년 각1명씩 6명에게 수여했다. 이 장학금은 권 동문이 기부한 부동산 임대수익을 통해 마련된 장학금이다.

김인수 동문, 문학장학금 5천만원

김인수(농학76, AMG코리아 대표이사)동문이 문학인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금 5천만원을 모교 윤성이 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동문은 현재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이다.

이번 기부는 1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김인수 대표이사의 주변 동문들과 지원인들의 릴레이 기부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부금은 ‘동국문학인장려장학’이라는 명칭으로 조성되어 문학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경찰사법대학 장학금수여식

경찰사법대학(학장 최응렬)은 6월4일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2020년 1학기 경찰사법대학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재학생 43명에게 총4천4백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주)에스원, 한국가이던

스, 경찰사법대학원 총학생회, 법무법인 창조 김태현 동문, 채문희 박사, 경찰행정학과 고시동우회, 경찰행정학과 장학회, 경찰사법대학소속 교수 등이 보내온 정재로 마련됐다. 현재까지 20년 이상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조경학과 발전기금 1천만원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90학번(대표 박수미) 동문들이 올해 입학 30주년을 기념해 5월4일 학과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이영경 캠퍼스총장에게 전달했다.

조경학과는 2010년 30주년을 맞은 80학번부터 매년 입학 30주년이 되는 동문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전달해왔다.

교육학과 모교 5백만원

교육학과동문회(회장 김종찬)가 4월9일(목) 모교를 방문해 교육학과기금 5백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교육학과 세미나실 환경개선 공사에 사용된다.

교육학과 동문회 안태호 부회장, 이관호 감사(85학번), 송철근(85학번)동문과 모교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윤재웅 사법대학장 등이 전달식에 참석했다.

(주)데오텍크·(주)데오시스

친환경 악취제거 전문기업 | 국립 축산 과학원 공동개발

대표이사

서승훈

(정치외교학과 73)

010 . 7739 . 7928 suhubin@naver.com

(주)데오텍크경기

1561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38번길 14
Tel. 031) 985-0383 / Fax. 031) 494-0383

(주)데오시스

154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천로 37-9, 305동 309호
Tel. 031) 362-4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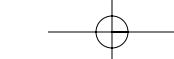
www.deotech.co.kr

**자체개발한
순수고농도이산화염소가스제조**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살균 및 악취제거 전문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Deo Tech



[14] 2020년 6월 30일 (화)

회비납부

제252호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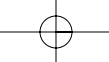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0년 4월 1일 ~ 6월 29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고문 분담금 100만원	권오춘 (57영문) 초허당후원기금 일꾼	명성스님 (64불교) 청도운문사 회주	박종윤 (56경제) (주)세창 회장	송석환 (64농경) 동진기업(주) 회장	수불스님 (17대학원) 인국선원 선원장	심경모 (57영문) 서정연구소 대표	윤성이 (83농경) 동국대 총장
	이민희 (52정치) Train Works 회장	이창규 (62경영) DK메디칼슬루션 회장	일면스님 (75승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전순표 (53농학) (주)세스코 회장	조은구 (64경제) (주)동양에스텍 회장	조희영 (59경영) 동국대 명예교수	최상철 (64경영) 파인글로벌(주) 대표이사
부회장 100만원	공석돈 (79회계) (주)백상개발 대표	공영대 (78화학) 동국대 화학과 교수	김문선 (79전자공학) (주)다물시스템 대표이사	김병은 (92행대원) 연양김씨대종회 명예회장	김석만 (89사대원) (주)SH신한 회장	김애주 (76영문)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김진억 (73경영) 우진NS(주) 상임감사
	나경미 (70정외) 제일테크노스 명예회장	명우스님 (67불교) 성심사 주지	문선배 (17경대원) 신화종합건설 대표이사	민병덕 (74경영)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민홍기 (74경영) (주)유엔아이 대표이사	박공서 (88행대원) (주)청음미디어 대표이사	박순 (66불교) 前 불교여성개발원장
	박학도 (69무역) 영암고속(주) 대표	법조스님 (70불교) 포항 옥천사 회주	성웅스님 (91불대원) 노악산 남장사 주지	성월스님 (92불대원) 용주사	송일석 (76미술) (주)은민에스엔디 사장	신동수 (71경영) (주)유상 회장	신영태 (81무역) 티디에프코리아 대표이사
	원명스님 (67인철) 관음사 주지	원선스님 (03불대원) 해룡사	위재춘 (64경영) 여성종합나무(문인) 대표	윤재민 (81사학) 종합출판 범우사 사장	윤혜경 (82인철) 동악회 총무	이상진 (00경대원) 대풍그린농원 대표	이승성 (76체교) (주)은민에스엔디 회장
	임금동 (81경영) 한세상사 대표	장명준 (18APP과정) 포인트시스템 대표이사	정종식 (76공업경영) (주)성우정공 회장	조충미 (81교육) 구암허준마을작은도서관장	진각스님 (09사대원) 송광정사 주지	최대식 (79회계) K&C세무회계 대표	해운스님 (11불교) 포항 원법사 주지
	황경환 (87교대원) (주)진양유조선 회장						



제252호

회비납부

2020년 6월 30일 (화) [15]

부회장

김희배 (81공경)	50
한상인 (69도공)	50
장동랑 (70정외)	20

지도위원 30만원

구자근 (86법학)
김관수 (63행정)
김동대 (58경제)
김보열 (57경제)
김용길 (61법학)
김진하 (71무역)
박복식 (57법학)
변종국 (65경제)
성낙훈 (82행대원)
신현태 (54경제)
심현식 (59상학)
오만식 (90언정원)
윤청광 (59영문)
윤홍섭 (65상학)
이경구 (58법학)
이광세 (86경대원)
이기화 (57경제)
이상호 (60국문)
이점구 (96산업기술대학원)
이제곤 (64경제)
이주상 (59정치)
이진호 (64농경)
전영화 (65경행)
전진표 (60임학)
정동귀 (57정치)
정재기 (64정외)
정환민 (65농학)
조홍기 (58영문)
지만호 (87행대원)
최병식 (59불교)
태연자용스님 (91불대원)

상임이사 20만원

강재웅 (83산공)	이철중 (77도공)
고천석 (76정외)	이판우 (89경제)
권정의 (98대학원)	이현호 (69공업경영)
김강균 (96경행)	임수현 (86사회)
김동빈 (64행정)	임영수 (71무역)
김래동 (80행정대원)	임 준 (81체교)
김문경 (64농경)	조석규 (68도공)
김상래 (78경영)	주상길 (98경대원)
김인호 (01국제정보대학원)	지재성 (78공업경영)
김창기 (95경대원)	지종스님 (07한국음악)
김춘추 (74영문)	진재경 (73영문)
김현권 (64경제)	차진구 (78건공)
김현권 (80체교)	차형천 (72정외)
남만우 (01사대원)	최정우 (83철학)
류복수 (95사대원)	최자섭 (69경제)
문기재 (03행정대원)	추교준 (02사대원)
박상관 (79행정)	하한기 (77건공)
박종세 (92경영)	학신스님 (07불문원)
방재홍 (79경대원)	허남태 (80환경조경)
백우현 (66화학)	허정수 (80경제)
법현스님 (80승가)	홍성하 (65응생)
손문영 (69토공)	황진택 (95행정대원)

연회비 3만원

유아근 (7기미)	각원사 주지스님
윤우옥 (59생물)	강덕선 (64경제)
이강욱 (00경영)	강무등 (64동경)
이기영 (78경제)	강서일 (73영문)
이상명 (83경대원)	강익수 (77건공)
이영안 (65경영)	고담스님 (09불문원)
이원호 (89사회)	고승남 (84경영)
이준용 (04행대원)	고희신 (86의학)
이춘필 (99불대원)	공희준 (88정외)
이학송 (78불교)	곽상춘 (90언정원)
이호중 (85행정)	관오사 주지스님
조수길 (87법학)	관음사 주지스님
지순구 (79행대원)	관음사 주지스님
진각화봉스님 (88한의대)	광덕사 주지스님
최명희 (14행대원)	광덕사 주지스님
한규범 (78경대원)	광도사 주지스님
허정수 (80경제)	구본희 (01산림자원)
홍선기 (69정외)	구영철 (67경영)
홍진수 (98경대원)	권석철 (59경영)
함도현 (70행전)	권수인 (70경영)

이사 10만원

강희석 (97호경)	기인종 (69경제)
구학모 (90행대원)	김경선 (97세무회계)
김규태 (46영문)	김경일 (67연영)
김득웅 (83사회)	김계현 (56경제)
김명길 (70공업경영)	김광복 (94행대원)
김명희 (85미술)	김광영 (59경영)
김미현 (13행대원)	김교남 (61불교)
김상구 (74경영)	김교식 (75농학)
	김구연 (01서양화)

김상우 (90화학)	김근배 (86식공)	대용스님 (88선학)
김영린 (64법학)	김기주 (79국문)	덕림사 주지스님
김인순 (80경대원)	김기포 (73경제)	덕운사 주지스님
김진길 (72행정)	김낙현 (60경영)	덕주사 주지스님
김현진 (07대학원)	김낙현 (82체교)	덕현스님 (89불교)
나채운 (99산업대학원)	김남수 (57법학)	도갑사 주지스님
노유성 (81사회)	김남수 (62상학)	도윤호 (90행대원)
민 해 (74국교)	김농주 (83경행)	동훈스님 (94불대원) 1
박덕진 (90법학)	김동원 (60정치)	류법열 (82체교)
박동석 (87임학)	김동찬 (78식공)	류수택 (60경영)
박상문 (64국문)	김동철 (71건공)	류혜숙 (72사회교육)
박운규 (85토공)	김만율 (57법학)	맹주옥 (83행정)
박인동 (79사회)	김명석 (85정외)	문대성 (56정치)
박정훈 (80사회)	김문관 (80화공)	문중현 (00사회환경)
박천운 (67경행)	김방근 (68경영)	만병진 (57정치)
백경선 (80불교)	김배근 (58경제)	민웅식 (57경제)
서동부 (92사대원)	김백한 (59법학)	민현호 (81영문)
성순경 (93불대원)	김범동 (92무역)	박덕성 (66식공)
송경옥 (84연영)	김병극 (95대학원)	박덕준 (88경영)
신남선 (84법학)	김병상 (58경제)	박동훈 (03경대원)
신형철 (77체교)	김병택 (71대학원)	박래학 (61경제)
신화섭 (84화학)	김봉수 (64통계)	박민규 (09기계로봇에너지)
안상준 (16법대원)	김봉식 (62불교)	박병환 (82물리)
오선호 (84영문)	김석중 (02대학원)	박상현 (91전기)
오수환 (84경제)	김성광 (65성학)	박선구 (60정치)
오택원 (73국문)	김성양 (87통계)	박성무 (65정외)
우병웅 (03사대원)	김성찬 (95전자공학)	박성현 (97북한)
우진스님 (03대학원)	김소연 (99연극)	박우정 (16행대원)
우철희 (89경제)	김수열 (82화공)	박운학 (86경제)
유병동 (73공업경영)	김시호 (83농업경제)	박윤태 (64상학)
윤대호 (75전자공학)	김연호 (64경영)	박장서 (57시학)
이경현 (64상학)	김연희 (99불대원)	박준근 (08행대원)
이권학 (86인철)	김영삼 (89산공)	박준엽 (89화공)
이동섭 (74회계)	김영전 (84경제)	박준일 (95회계)
이병노 (86경행)	김영호 (74회계)	박지환 (60경영)
이상구 (81인철)	김영호 (99경대원)	박정규 (87법학)
이상칠 (79사회)	김완주 (63통계)	박정규 (82무역)
이승훈 (97정보관리)	김용근 (76공업경영)	박지형 (80수학)
이승복 (85경행)	김용배 (72경행)	박하서 (97사대원)
이시우 (61정치)	김용설 (90화학)	박학률 (84경대원)
이영숙 (69사회교육)	김용원 (01사대원)	박현식 (03행대원)
이용석 (73정외)	김용해 (79행대원)	박홍원 (83건공)
이인배 (92경대원)	김용흥 (64경행)	박희운 (75회계)
이진국 (72경영)	김윤기 (64임학)	박희찬 (97건공)
이천기 (64농경)	김윤남 (92경대원)	배봉규 (81경영)
이철종 (77토공)	김윤상 (65정외)	배상덕 (94보한)
이판우 (89경제)	김윤숙 (75무역)	배주환 (77전기)
이현호 (69공업경영)	김은겸 (86농학)	백승권 (85국문)
임수현 (86사회)	김응조 (58불교)	백승만 (63국문)
임영수 (71무역)	김의배 (79무역)	백운사 주지스님
임 준 (81체교)	김익상 (61법학)	변종근 (60법학)
조석규 (68도공)	김인범 (85법학)	보문사 주지스님
주상길 (98경대원)	김인식 (64경제)	보천사 주지스님
지재성 (78공업경영)	김인태 (57영문)	불락사 주지스님
지종스님 (07한국음악)	김재완 (92인철)	비암사 주지스님
진재경 (73영문)	김재희 (75화학)	사현스님 (02불대원)
자진구 (78건공)	김정의 (61경영)	삼성사 주지스님
차형천 (72정외)	김종기 (82경영)	삼성암 주지스님
최정옥 (83철학)	김종덕 (66경영)	삼정사 주지스님
최지섭 (69경제)	김종만 (65경행)	삼화사 주지스님
추교준 (02사대원)	김종민 (69공업경영)	서거원 (60경제)
하한기 (77건공)	김종삼 (61식공)	서광의 (85전기)
학산스님 (07불문원)	김종환 (61불교)	서동일 (84경행)
허남태 (80환경조경)	김주갑 (60법학)	서문양 (95경대원)
허정수 (80경제)	김 준 (65통계)	서문진 (97정보보통신)
홍성하 (65응생)	김진렬 (09사대원)	서분도 (82국운)
황진택 (95행대원)	김진근 (78토공)	서석구 (56법학)
	김진영 (79전자공학)	서승오 (57법학)
	김찬동 (96경대원)	서암정사 주지스
	김창식 (63국문)	서재희 (64경영)
	김천수 (52경제)	서정록 (68수학)
	김철우 (93불교)	서정원 (62경제)
	김춘수 (85산공)	서정학 (81영문)
	김춘수 (81화공)	서창식 (60상학)
	김충석 (59상학)	서형석 (78공업경영)
	김택우 (79경제)	설세훈 (87교육)
	김판근 (66경행)	설안스님 (00대학원)
	김한기 (03행대원)	성기호 (61상학)
	김한진 (64상학)	성불사 주지스님
	김향배 (58철학)	성심사 주지스님
	김해동 (91언정원)	손병성 (80화학)
	김현정 (82일문)	손상필 (62경제)
	김현진 (07대학원)	손창학 (81건공)
	김현팔 (64국문)	손호목 (79회계)
	김혜민 (11정외)	손희주 (01경영)
	김호성 (95경영)	송광사 주지스님
	김호식 (79국문)	송광호 (73경제)
	김홍렬 (59경영)	송기훈 (65경제)
	김현규 (60정치)	송달용 (54농학)
	김효수 (83경제)	송인재 (88사회)
	김후석 (72경행)	송재관 (64행정)
	김홍문 (95법학)	송재신 (58법학)
	김희동 (00경영)	송후중 (66행정)
	나덕찬 (84회계)	수경스님 (78불교)
	남계동 (64임학)	신광사 주지스님
	남금광 (63상학)	신상근 (01경영)
	남숙희 (68국문)	신영옥 (95불대원)
	남시혁 (54정치)	신영철 (57국문)
	남윤지 (80사회)	신용인 (84행대원)
	남운우 (90산공)	신우철 (67경영)
	남장사 주지스님	신원사 주지스님
	노윤정 (01건축)	신우철 (96무역)
	대용스님 (98불대원)	신중국 (63식공)

신진우 (83경제)	이영재 (81법학)
신태환 (63법학)	이영찬 (72농학)
신태환 (63법학)	이영희 (01불대원)
신혜주 (72사회교육)	이용국 (74경영)
신호중 (76통계)	이용정 (89회계)
심경용 (67법학)	이원생 (61법학)
심규선 (61물리)	이운섭 (58경제)
심명호 (67응생)	이운집 (79교대원)
심설희 (93국문)	이율우 (12법학법률습
심재봉 (83중문)	이일환 (87행대원)
쌍계사 주지스님	이장걸 (56사학)
안군선 (85회계)	이장환 (69무역)
안심사 주지스님	이재동 (97불대원)
안심사 주지스님	이재봉 (65물리)
안정상 (85회공)	이재원 (58법학)
안종성 (00경대원)	이정자 (67불교)
안주희 (81불교)	이정철 (05경행)
안창영 (60임학)	이정호 (74경행)
안태호 (85교육)	이정희 (83통계)
안한상 (66국문)	이종근 (95경제)
안희백 (71토공)	이종만 (05국제통상)
악천사 주지스님	이종서 (71법학)
양병일 (92건공)	이종찬 (56국문)
양영삼 (63경제)	이종준 (90조경)
양용자 (03불대원)	이종한 (70경영)
양재경 (97대학원)	이주환 (55정치)
여은규 (55영문)	이준복 (87회계)
여인근 (58임학)	이준재 (71화공)
여현준 (67법학)	이중량 (55정치)
연화사 주지스님	이중민 (00경영)
염동훈 (58법학)	이진혁 (75화학)
영안스님 (74승가)	이진호 (75체교)
영천암 주지스님	이철우 (59국문)
오명석 (88경대원)	이태윤 (64법학)
오상진 (81법학)	이태재 (79경영)
왕산사 주지스님	이태한 (66경영)
왕수일 (83무역)	이해규 (57법학)
용천사 주지스님	이홍운 (82회계)
용화사 주지스님	인형식 (61영문)
용화사 주지스님	일선스님 (95불대원)
우정스님 (96불대원)	임경섭 (57사학)
우현의 (10불대원)	임인규 (78승가)
원봉스님 (02불문원)	임종홍 (86경대원)
원영상 (62경제)	자비사 주지스님
원우형 (63영문)	장경사 주지스님
원종대 (61정치)	장경웅 (61상학)
원칠스님 (01불문원)	장고사 주지스님
월봉사 주지스님	장근석 (82물리)
월정사 주지스님	장명근 (58법학)
유경철 (92전자)	장봉기 (86교대원)
유두상 (70경제)	장석기 (58정치)
유병준 (66경제)	장석조 (57법학)
유상갑 (64법학)	장선경 (06행정)
유상번 (70행정)	장세인 (69정외)
유상현 (64행정)	장원동 (93사대원)
유영근 (90경대원)	장익선 (71물리)
유영만 (00법학)	장해수 (76경영)
유영식 (55법학)	장희범 (75식공)
유윤철 (67경영)	전문순 (81회계)
유준모 (55법학)	전병옥 (04법학)
유환식 (54경제)	전성표 (17미래융합교
육문균 (96경제)	전수식 (56법학)
윤석재 (70경영)	전요환 (91경행)
윤석제 (59법학)	전윤호 (75건공)
윤완수 (88불교)	전익홍 (85법학)
윤중유 (81행대원)	정경환 (86무역)
윤진희 (78화공)	정대연 (64연영)
윤태평 (64농경)	정동민 (67경영)
이건선 (65임학)	정석승 (59상학)
이건왕 (82건공)	정석원 (76경제)
이경우 (48국문)	정성일 (89경행)
이경진 (09식품산업시스템)	정승석 (75인哲)
이경해 (87화학)	정심사 주지스님
이광섭 (65상학)	정용일 (70법학)
이규성 (64정외)	정운영 (81전자계산)
이기학 (82경영)	정원동 (87정외)
이낙호 (92행대원)	정인호 (82농업생물)
이남영 (94행대원)	정일주 (96문예대)
이대우 (92행대원)	정일준 (71경제)
이덕성 (70체교)	정재군 (87법학)
이동민 (82경행)	정창숙 (94교대원)
이동우 (56법학)	정총래 (78국교)
이동원 (78회계)	정취임 주지스님
이득현 (72국교)	정태수 (72행대원)
이 련 (64국문)	정백열 (83화공)
이맹우 (91불대원)	정토사 주지스님
이법찬 (82행대원)	정 현 (91화학)
이병길 (67화학)	정홍진 (95불대원)
이삼수 (19불문원)	조남풍 (88행대원)
이상봉 (83산공)	조덕빈 (91수학)
이상용 (75건공)	조만수 (70경영)
이상현 (06대학원)	조병권 (85경대원)
이석봉 (86행대원)	조석래 (75전자공학)
이석원 (76전기)	조신래 (87체교)
이석호 (77행정)	조영래 (89일문)
이선래 (94행대원)	조일권 (55법학)
이선주 (90의학)	조정현 (01교대원)
이성원 (80공업경영)	조순수 (87경대원)
이세준 (60정치)	조통달 (94문예대)
이승박 (79한의학)	조현철 (77화공)
이시우 (61정치)	조호철 (89언정원)
이영규 (73수학)	조 흥 (76경제)
이영길 (99행대원)	주용민 (75경영)

장사 주지스님	100
진관사 주지스님	
진성기 (99행대원)	
진성스님 (76승가)	
차관준 (88통계)	
차준환 (70전자공학)	
천병일 (62화학)	
천은사 주지스님	
철은스님 (86교대원)	
청곡사 주지스님	
청룡사 주지스님	
청운스님 (93불대원)	100
최경수 (92회계)	
최관호 (84경행)	
최근수 (93산업대학원)	
최낙석 (59경제)	
최동지 (75토공)	
최동철 (08언정원)	
최무남 (70경행)	
최민석 (03전자)	
최병주 (61불교)	
최본식 (59상학)	
최봉석 (92정외)	
최상기 (74전자계산)	
최수용 (85전자계산)	
최승천 (91불대원)	
최영대 (92행대원)	
최영록 (08문예대)	
최영안 (63국문)	
최윤희 (07경제)	
최은기 (82독문)	
최인택 (84건공)	
최일상 (66경제)	
최재오 (57법학)	
최종태 (57법학)	
최종열 (56정치)	
최 진 (72국교)	
최천규 (80화공)	
최효식 (64사학)	
최홍길 (58경제)	
최희규 (90생물)	
최희륜 (60생물)	
탁병온 (76공업경영)	
태충명 (00불대원)	
편우장 (88의학)	
하림스님 (88선학)	
하중대 (55정치)	
하혜순 (92불대원)	
한도수 (58경제)	
한상운 (06선학)	
한성권 (80경영)	
한성일 (94법학)	
한영수 (76수학)	
한인만 (64국문)	
한진석 (72전자공학)	
함한진 (96정보관리)	
해인사 주지스님	
항림사 주지스님	
현정스님 (97불대원)	
현진스님 (83선학)	
혜안스님 (96선학)	
혜은사 주지스님	
홍기표 (58정치)	
홍면유 (68자동제어)	
홍영자 (64국문)	
홍제스님 (84선학)	
홍종관 (68경영)	
화릉사 주지스님	
화엄사 주지스님	
화엄사 주지스님	
황대현 (10정보통신)	
황상주 (71미술)	
황윤걸 (60임학)	
황종환 (96행정)	

제생침비 50만원

실재본 (83주문)

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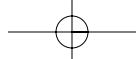


• 5.1.1.1 (4부-10) 100

동명사 월2 누계 : 152만원
이자걱 (56사하) 10

동국장학회

이진혁 (75화학) 월5
누계 : 400만원
이성훈 (97정보) 월2
누계 : 48만원



[16] 2020년 6월 30일 (화)

전 면 광 고

제252호

가족사랑을 지키는 약속



옐로카펫이 보이면, 차보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한 약속 – ‘옐로카펫’
DB손해보험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면 약속하세요!



‘옐로카펫’이란?
교통사고 피해가 많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의 벽과 바닥에 설치되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지대입니다.

DB손해보험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전국의 학교 앞이나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옐로카펫’을 후원합니다. ‘가족사랑을 지키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